‘무주산골영화제’ 전체 프로그램 공개

개막작 무성영화 ‘바람’ 라이브 with 뮤직+더빙 선정

푸른 자연, 보랏빛 낭만으로 가득한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가 올해 개막작 및 전체 상영 프로그램을 공개해 기대감을 더한다.

‘무주산골영화제’의 개막작은 다양한 영화들에 라이브 연주를 결합한 복합공연 형태로, 매년 관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를 여는 개막작은 무성영화 시대를 대표하는 거장 빅토르 쇠스트롬의 1928년작 〈바람〉으로, 이 작품은 한 여성의 정서적 고립과 고통스러운 심리를 자연과의 충돌과 연결시켜 시적으로 형상화한 무성영화 시대 최고의 걸작이다. 〈말하는 건축가〉(2011)의 정재은 영화감독이 총연출을 맡았으며, 작곡가 겸 거문고 연주자 황진아를 중심으로 한 4인조 컨템포러리 음악 밴드 ‘반도’의 연주와 배우 김우진, 윤동원, 최다은, 홍나현의 라이브 더빙으로 작품의 몰입을 더할 예정이다. 6월 6일(금), 관객들은 초여름 밤의 정취 속 영화 유산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다시 만날 수 있다.

무주등나무운동장 일대 4개의 실내상영관과 3개의 야외상영장에서 열리는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는 18개국 86편의 작품을 상영하며, 오늘 오후 2시부터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체 프로그램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일곱 번째 〈넥스트 액터〉로 선정된 최현욱 배우

빅토르 쇠스트롬 ‘바람’

를 직접 만날 수 있는 현장 프로그램을 비롯해, 올해 신설된 〈넥스트 시네아스트 박세영〉과 〈디렉터즈 포커스 엄태화〉 프로그램, 〈동시대 시네아스트〉로 선정된 션 베이커, 〈토킹시네마〉 등 여러 국내외 영화와 영화인들을 집중 조명하는 프로그램들이 관객들에게 영화적인 깊이와 새로운 재미를 한층 더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영화제는 3일간 진행되는 만큼, 6월 6일(금) 영화제 첫날 주간부터 실내 및 야외에서 영화제 관객들이 더욱 풍부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게 준비했다. 특히 무주등나무운동장 메인 무대는 ‘등나무스테이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활용도를 높여, 주/야간 영화 상영 및 음악 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더욱 원활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등나무스테이지에서는 에피톤 프로젝트, 적재, 이승윤, 유다빈밴드, 소수빈, 오월오일 등의 개성 있는 뮤지션들이 영화제의 낮과 밤을 낭만으로 물들일 예정이며 매일 밤 피날레를 장식할 이민휘 음악감독, 밴드 CHS 등과 함께 할 무성영화 라이브 연주의 감미로운 시간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밖에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산골책방’과 ‘키즈스테이지’, 무주산골영화제에서만 즐길 수 있는 숲속 극장 ‘덕유산국립공원’에서 만나는 심야 상영 프로그램도 더욱 알차게 준비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무주산골영화제는 관객 안전을 위한 인력 배치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숙박/교통 패키지 상품 출시, 셔틀버스, 안내데스크, 편의시설 등 현장 운영을 정비하여 영화제를 찾은 관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 티켓은 오는 13일 실내상영 프로그램 예매를 시작으로, 14일부터 무주등나무운동장 1일 입장권 및 숙박, 교통 패키지 예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체불가한 초여름의 영화 축제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오는 6월 6일부터 8일까지 총 3일간 무주군 일대에서 개최되며 올해 개막작을 비롯한 전체 상영작 및 프로그램 등 상세한 정보는 무주산골영화제 공식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 대전 시상식

총 37점 작품 수상작 선정… 대상 김의식 작가 ‘삼단 광한루 진열장’

남원시가 주최하고 남원 목공예협회가 주관한 제28회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 대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에서 개최됐다.

본 대전은 1997년부터 개최된 전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옻칠 목공예 분야 공모전으로, 옻칠 목공예 분야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목기 제작 기술인 ‘갈이 공예’의 조명과 발전을 위해 각각의 분야로 구분하여 매년 진행하고 있어 더욱 특별하다.

올해는 총 108점의 작품이 접수되어 37점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하였으며, 대상작(국무총리상)은 김의식 작가의 ‘삼단 광한루 진열장’으로 전통 나전기법을 활용하여 광한루와 이몽룡 그리고 성춘향의 이미지를 아름답게 조합한 전통성과 지역성을 잘 표현한 완성도 높은 수작이라는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다.

금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상작 2점은 옻칠 목공예 분야 장왕기 작가의 ‘흐르는 물결’, 갈이 분야 이상훈 작가의 ‘오월’이 각각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수상작은 오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전주

한옥마을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시는 그동안 대전에서 수상한 작품들과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남원 현대 옻칠 목공예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남원이 가진 문화예술 전통 자산인 옻칠 목공예를 한국을 대표하는 공예 문화로 성장시키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국악 명상 수강생 모집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국악과 명상이 어우러진 힐링 프로그램 ‘2025 나를 위한 쉼, 국악 명상’의 상반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본 프로그램은 5월 21일부터 6월 1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며, 흥부전의 이야기를 모티프로 구성된 목조 실내공간과 뜨락이 어우러진 국립민속국악원 2층 ‘흥부마루’에서 총 4회에 걸쳐 운영된다.

국악 명상은 아침의 고요함 속에 국악의 정서적 울림과 다양한 명상 기법을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쉼과 회복의 시간을 선사하고자 기획되었다.

프로그램은 △1차(5월 21일) 국악과 아로마로 깨어나는 방짜유기 림프 마사지 △2차(5월 28일) 몸의 흐름-바디스캔과 한국무용 몸짓 플로우 △3차(6월 4일) 정중동(靜中動) 울림의 예술, 마음챙김 티(茶) 명상과 태극 명상 △4차(6월 11일) 달항아리 명상과 사운드배스(Sound Bath)로 구성된다.

신청 대상은 성인 일반인으로 회차별 정원은 20명으로 선착순 마감되고, 수강료는 전 회차 무료로 12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정원 미달 시에는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문화재단, 흑석골 어르신 한지예술활동 운영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은 오는 23일부터 전주시 서서학동 흑석골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지예술활동 프로젝트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흑석골 어르신 한지예술활동’은 전주천년한지관이 지역 예술가와 협업해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흑석골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지를 매개로 자신과 가족, 마을에 대한 기억을 표현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 자원을 발굴·확장하는 참여형 프로젝트다.

이 프로그램은 ‘다시 봄이 온다면 말이야’라는 소규모 연극으로 시작된다. 이후 어르신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나와 가족, 집, 마을’을 주제로 글과 그림을 창작하게 된다.

특히 동년배 어르신을 강사로 초청해 자연스럽고 정서적인 교감 속에서 창작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 주목된다. 창작 결과물은 오는 8월 전시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공유될 예정이다.

한편 전주천년한지관은 매년 12월 진행되는 닥무지 재현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어르신과의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향후 ‘K-한지마을’ 조성 등 한지문화 공동체 형성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전주천년한지관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최락기 대표이사는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한지 체험을 넘어, 어르신들의 기억과 감정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과정”이라며 “이를 통해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세대 간 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 펼쳐진다

5~11월 전주 · 익산 · 남원 · 진안 · 고창 5개 시 · 군서 총 74회 거리공연 진행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2025 전북특별자치도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이하 노상놀이야)’ 거리공연을 도내 5개 시·군에서 총 74회의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9일 재단에 따르면 올해 9년째를 맞는 ‘노상놀이야’는 5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전주, 익산, 남원, 진안, 고창의 주요 관광지에서 펼쳐진다.

올해 참여하는 시·군 및 수행단체로는 △전주(합굿마을문화생산자협동조합), △익산(국악예술원 소리뫼), △남원(협동조합 지리산권마실), △진안(전라좌도진안중평굿보존회), △고창(아트컴퍼니 고풍) 등 총 5곳이다.

전주는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전주한옥마을 청연루와 경기전 일대에서 동학군 이야기를 기접놀이와 마당극으로 풀어낸 〈한옥마을 전통연희 퍼레이드〉를 선보인다. 다만, 7~8월은 혹서기로 인해 공연을 쉬어간다.

익산은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지정된 날 오후 2시(6~8월 휴연), 익산 미륵사지에서 백제 무왕의 이야기와 즉위식을 취타대 및 마당극 형식으로 재현한 〈백제무왕 납시오〉를 공연한다.

남원은 5월부터 9월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3시(8월 휴연), 남원 광한루원 일대에서 심수관과 도예이야기를 주제로 한 연희극 〈도자기 둥딱!〉을 선보인다.

진안은 6월부터 11월까지 월별 공연 일정에 맞춰 오후 1시, 진안 마이산 탑사 거리 일대에서 마이산과 금척 관련 설화를 농악 퍼포먼스로 구성한 〈마이산 놀이길 산울림〉을 공연한다.

고창은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6~8월 휴연), 고창읍성에서 대형 깃발과 함께하는 대규모 농악 퍼레이드 〈흥따라 멋따라 판따라〉를 통해 시각과 청각의 풍성함을 더할 예정이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도민과 관광객이 전북의 거리에서 예술을 가까이 경험하며, 지역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성과 예술성을 살린 거리공연을 통해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 문화관광달력(www.jbct.or.kr)과 예술회관 운영팀(063-230-7495)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